

사람들의 심리전달에서 노는 어조의 기능과 그 실현의 몇가지 내용

박사 부교수 정래순

1. 서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말의 어조는 말하는 사람의 태도, 말소리의 높낮이와 장단, 강약과 색깔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됩니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6권 374페이지)

사람들의 심리는 언어교제과정에 여러가지 언어적수단과 방법에 의하여 표현되고 전달된다.

우선 사람들은 선택하는 어휘나 그 표현방식을 통하여 이러저러한 심리를 나타낼수 있다.

가령 사람들은 상대방이 자기를 어떻게 부르는가 하는데 따라 자기에 대한 상대방의 존경 또는 비존경, 기대와 부탁과 같은 이러저러한 심리를 판단할수 있으며 상대방의 나이나 준비정도, 이야기분위기와 정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방식도 때로는 직선적으로, 때로는 에둘러 가면서 서로 다르게 선택할수 있는것이다.

또한 사람들은 말소리흐름과정에 어조를 통하여 자기의 심리를 나타낼수 있다.

지난 시기 우리 나라에서 어조문제는 주로 《방송화술론》, 《조선말화술》 등에서 순수 화술문제와 연관시켜서만 분석하여왔다. 결과 실지 다양한 심리를 체현하고있는 사람들이 각이한 교제과정에 자기의 심리를 정확히 전달하는데서 어조와 같은 보조적수단을 교제의 내용과 어떻게 결합시켜 리용해나가겠는가 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충분한 대답을 주지 못하였다.

이 글에서는 무엇보다먼저 어조와 그 구성요소 그리고 어조가 심리전달에서 노는 중요한 기능에 대하여 분석일반화하며 다음으로 그에 기초하여 사람들이 다양한 심리내용과 전달목적에 따라 어조를 달리하고 능동적으로 조절, 변화시켜나가는 각이한 계기와 내용에 대하여 분석한다.

2. 본론

2.1. 어조의 구성요소와 그 기능

어조는 구체적인 입말언어교제과정에 개별적인 말마디들을 하나의 통일된 발음단위로 묶어주면서 문장을 발음상에서 전일적인것으로 되게 하는 중요한 발음요소이다. 이런 의미에서 어조는 보통 《억양》과 하나로 통하여 쓰이기도 한다.

※ 어조(語調)(명) ① = 억양 ①.

② 《언어》말씨나 목소리.

친절한 ~. 다정한 ~.

⊖음조¹ ④.

(《조선말대사전》 증보판 3 사회과학출판사, 주체96(2007).)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무게있고 엄숙한 어조)
- 이 좋은 세상에서 근심걱정없이 살아온 내가 이제 무엇을 더 바라겠소.

(만족한 어조)

어조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첫째로, 어조는 어디까지나 의미적단위우에 덧붙는 보조적수단이다.

의미전달에 쓰이는 기본수단, 주되는 수단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보조적수단이라는 여기에 음악에서 선율의 음조와 구별되는 어조의 중요한 특징이 있다.

음악에서 선율의 음조는 언제나 주도적이며 독자적인 수단이다. 선율의 음조는 어조보다 높낮이와 길고짧음, 세기가 훨씬 더 뚜렷하고 규칙적이며 절제가 있는것으로 하여 어조와 구별된다.

둘째로, 언어교제에서 나타나는 어조는 끝없이 다양하다.

물론 사람마다 자기의 고유한 말본새 즉 기본어조는 상대적으로 고정되어있어 좀처럼 흐트러지지 않는다.

그러나 어조는 이야기되는 내용과 듣는 사람에 대한 태도, 이야기분위기와 말하는 사람 자신의 건강상태, 사상문화적 및 도덕적준비상태와 기분상태 등 여러 요인에 의하여 매번 섬세하게 바뀌어진다. 이런데로부터 한사람의 말에서도 힘있는 어조와 보통어조, 맥없는 어조가 함께 나타나는가 하면 때로는 날카롭고 신랄한 어조가 친절하고 상냥한 어조로 엇바뀌기도 한다. 여기에다가 말하는 사람의 발음생리적인 능력과 수준, 습관, 방언적인 영향까지 고려한다면 어조는 그야말로 천재만상이다.

셋째로, 어조는 오랜 언어사용과정에 각이한 대상, 현상에 대한 사람들의 이러저러한 평가를 감정정서와 결부시키면서 그것을 언어적수단속에 덧붙인 결과 형성된다.

어조는 해당 말소리자체에 고유한 객관적속성이 아니다. 어음체계속의 어느 한 말소리도 그것이 말소리흐름속에 놓여 발음의 단위로 실현되기 전에는 높고낮음이나 길고짧음, 세기와 같은 톨동적성격을 띠지 않으며 언제나 중성적이다.

말소리는 일정한 사상감정을 주고받는 사람들의 언어교제에 리용되면서 비로소 선율적요소를 동반하여 교제흐름을 아름답게 할수도 있고 그렇지 못하게 할수도 있다.

이러한 어조는 한 언어의 테두리안에서 리해되고 허용되면서 매개 언어에 고유한 민족적감정과 련결되며 또 시대의 요구와 사람들의 사상감정, 심리가 변화되고 달라지는데 따라 이렇게나 저렇게나 그 성격을 달리하게 된다.

무엇보다먼저 어조는 자기의 고유한 구성요소를 가지고있다.

높낮이와 길고짧음, 세기와 소리색갈 등은 어조의 구성요소를 이룬다.

발음과정에 사람들은 개개 말소리들을 따로따로 발음하는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안에 여러개의 말소리들을 결합하면서 그것을 련속적으로 실현해나간다.

이때 개별적말소리들이 발음상 소리마디와 소리매듭, 소리토막과 소리동강 등 하나의 통일적인 발음단위를 차례로 이루어나가게 되는것은 중요하게 말소리우에 덧놓이는 높고낮음과 길고짧음, 세기와 소리색갈과 같은 선률적요소들의 역할에 크게 달려있다.

소리의 세 요소 즉 높이, 길이, 세기가운데서 높이는 《조국》, 《혁명화》에서와 같이 단어가운데의 어느 한 소리마디를 특별히 높여 목청을 긴장시키면서 날숨을 보다 세계 내는것으로 나타나며 길이는 단어인 경우 모음을 발음하는 시간적길이를 나타내는것으로서 례컨대 《누-ㄴ 물》, 《바-ㄴ 나무》와 같이 일정한 단어에 국한되어 나타나는것이 전형적이다.

세기는 다른 소리마디보다 힘을 더 주어 발음할 때 나타나는것으로서 바로 거기서 단어가 시작되고 바로 그앞에서 단어가 끊어지는것이 보통이다.《방송화술론》 조선중앙방송위원회, 1984.)

소리의 높이에 따라 말소리흐름이 커지게도 되고 작아지게도 되며 소리길이로 하여 같은 뜻을 가진 단어에서는 뜻구별이 된다. 그렇지 않은데서는 발음단위간격을 늦추었다 조였다 하면서 흐름을 여유있게 해준다. 그리고 소리의 세기로 하여 전반적말소리흐름에 절도와 탄력성이 보장된다.

우리 말은 소리요소가 풍부하고 다양할뿐아니라 그것을 알맞춤하게 높고 길고 세계 조절할수 있기때문에 듣기에도 아름답다.

한편 말소리의 질에 대한 사람들의 감정정서적느낌, 평가는 소리색갈을 이룬다.

사람의 목소리는 말하는 사람의 사상감정상태와 밀접히 련관되어 여러가지 소리색갈로 나타난다. 가령 《참 좋다.》를 글로 써놓았을 때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것을 입말로 옮길 때에는 정말 좋은지, 어느만큼 좋은지, 진심으로 말하는것인지, 비꼬아 말하는것인지 등 사람들의 다양한 심리를 똑똑히 구분하고 리해할수 있는것이다.

다음으로 교제과정에 노는 어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어조는 교제과정에 사람들의 귀맛을 여러가지로 자극한다.

귀맛은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내용을 말소리로 들을 때의 느낌이다.

구체적인 언어환경의 영향을 직접 받으면서 각이한 사상감정과 서로 다른 체험세계를 지닌 사람들이 마주 대하여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입말교제의 경우 귀맛은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논다.

말은 우선 귀맛이 좋게 하여야 한다.

부드럽고 류창하고 힘이 있으면서도 명백한 말은 귀에 쑥쑥 잘 들어오며 누구나 즐겨 듣고 또 들을수록 더 듣고싶어한다. 이것은 마치 음악에서 속도와 박자의 련쇄적인 작용에 의하여 아름다운 선률이 생기고 그것으로 사람들의 감정정서의 충동을 정서적으로 표현해나가는것과 마찬가지로의 리치이다.

그러나 무슨 말을 하는지 알수 없을 정도로 작게 입속으로 중얼거리는것은 답답한 감을 주며 반대로 짜지고 메마른 소리, 거친 소리 같은것은 내용이 비록 좋고 표현방식이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귀에 잘 들어오지 않으며 오히려 시끄럽고 성가시게 느끼기가 쉽다. 그런가 하면 단어를 불규칙적으로 높이거나 낮추고 길게 뽑았다 짧게 끊었다 하는것은 산만하게 들리면서 같은 말도 마치 다른 말처럼 느끼게 만든다.

시끄럽고 성가신 귀맛 뒤에는 반드시 싫증이 따르기 마련이다.

결국 어조에 따라 교제대상과 교제내용에 대한 적극성과 소극성, 무성의 같은것이 생겨나게 된다.

둘째로, 어조는 교제의 활동성을 보장한다.

사람들은 언어가 가지고있는 객관적의미, 생경한 논리만으로 의사를 나누는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어조를 동반한 보다 형상적이고 음악적인 활동속에서 정서적인 교제를 진행한다. 발음이 아무리 똑똑하고 목소리가 좋아도 말에서 높고낮음과 세기가 없고 활동이 없으면 들을 맛이 없다.

일반적으로 선율적요소는 단어에서도 실현되고 문장에서도 실현된다.

단어에서는 개별적말소리나 소리마디의 발음에서 소리의 길이나 높이, 세기 등을 주어 소리마디들사이의 관계를 규정해주는것으로 나타나며 문장에서는 어느 하나의 단어, 문장 성분 지어 문장전체와 관련되어 높낮이를 주고 세기와 길고짧음을 주면서 때로는 세찬 파도와 같이, 때로는 잔잔한 물결과도 같이 말소리흐름전반에 음악성, 활동성을 살려준다.

그러므로 맑은소리와 흐린소리, 약한소리와 센소리, 높은소리와 낮은소리, 긴소리와 짧은소리들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조화롭게 되풀이되고 배합되는 음악적활동속에서 기쁨과 슬픔, 반가움과 노여움, 희망과 실망, 귀여움과 나무람, 놀라움과 두려움, 동정과 걱정, 아쉬움과 같은 여러가지 사상감정과 심리정서까지도 대화과정에 아주 섬세하고 명백하게 주고 받을수 있다.

적당하고 아름다운 말소리흐름과 굴곡을 가진 의미단위일수록 표현적의미의 전달은 물론 상대방과의 정서적호흡도 그만큼 더 깊어지고 충분한 리해가 뒤따르게 되는것이다.

셋째로, 어조는 말하는 사람의 교양 정도와 문화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외적표현형식의 하나이다.

어조에는 그 사람의 정신도덕적준비상태가 그대로 반영된다.

그것은 어조가 대화상대방과의 호상관계, 정황과 분위기에 어울리게 능동적으로, 자연스럽게 변화되면서 말하는 사람의 성격과 사상감정, 준비정도를 이모저모에서 구체적으로 보여주기때문이다. 그런것만큼 겸손하다든가, 거만하다든가, 뜨겁고 부드럽다든가 또는 뻔뻔하고 거칠다든가, 진심으로 탄복하고 말하는가 아니면 비양조로 꺾어 말하는가, 시답지 않아하는가, 신경질과 역증이 섞이였는가 등을 사람들은 대화과정에 어조를 통하여 민감하게 느끼고 받아들일수 있다.

말하는 사람의 어조가 부드럽고 겸손하면 그만큼 듣는 사람들에게서 교양이 있고 인품이 높다는 좋은 평가를 받지만 어조가 거칠고 투박하게 말하면 아무리 얼굴이 잘나고 옷차림이 미끈하여도 교양과 수양이 부족하고 무례하다는 좋지 못한 인상을 받게 된다.

부드럽고 겸손한 사람은 함부로 큰소리를 망탕 치지 않을뿐아니라 어조가 거칠거나 거만하지도 않으며 상대에 대한 무시와 모욕이 깔린 신경질적인 어조, 비양조가 섞인 어조를 될수록 쓰지 않는다.

상대를 존중하고 귀중히 여기며 자신을 무한히 낮추고 진지하게 배우고 도와주는 사상감정은 오직 친절하고도 문화성있는 아름다운 어조, 음악적인 세련된 활동속에서만 표현되게 되는것이다.

예로부터 노래와 춤은 우아하고 점잖은것을 좋아한 조선사람들은 말투도 부드럽고 겸손한것을 좋아한다.

2.2. 말소리흐름상에서 어조의 차이가 생기는 일반적계기

사람들의 어조는 교제내용과 교제대상 그리고 이야기의 정황과 분위기 등에 따라 다양하게 실현된다.

그런데로부터 말소리흐름상에서는 어조의 여러가지 차이가 생겨나게 된다.

첫째로, 사람들은 하나의 정황속에서도 자기의 감정심리가 변화되는데 따라 어조를 능동적으로 바꿀수 있다.

사람의 감정심리는 사상이나 의지와는 달리 매우 가변적이고 류동적인 특성을 띤다. 이러한 가변적이고 류동적인 감정심리는 기본어조를 포함한 말소리흐름새를 여러가지로 변화시킨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딸에게서 온 편지》를 그대로 옮긴 혁명연극 《딸에게서 온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장면이 있다.

연극의 주인공 허달수는 글 한자 모르면서도 이 세상 모든것을 자기가 다 꿰들고있는 듯이 자처하는 인물이다. 따라서 그의 어조는 언제나 자신만만하고 틀지며 혼시조를 띤 청 높은 소리이다.

연극의 1장에서 야학에 가겠다는 조카딸 봉순이에게 《남녀칠세 부당상?》이라고 큰 소리를 쳐놓은 주인공은 제 스스로가 어딘가 귀에 설은 감이 느껴지자 이번에는 《부당석? ...》하고 조용히 되뇌여본다. 그리고는 안해인 조씨에게 《그 말이 옳든가?》라고 슬그머니 묻는다. 그러나 달수는 인차 계면쩍은 감정을 누르며 이번에는 더 큰 소리로 확신성있게 《하여튼 남녀가 일곱살이면 한자리에 앉지두 말라는게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봉순이를 막아나선다. 말하자면 《부동석》이라는 말을 그 뜻도 모르면서 어림짐작으로 옮겨써먹는 주인공은 제판에 자신이 있을 때에는 높은 소리로, 뭔가 석연치 않을 때에는 또 조용한 어조로 뇌여보군 하는것이다.

이처럼 의미의 강조는 말하는 사람의 사상감정의 적극성과 많이 관련된다.

아래의 표현들인 경우에도 말하는 사람의 심리변화에 따라 소리의 길이나 세기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것을 알수 있다.

- 천이런가 만이런가. (과장)
- 천만의 말씀. (부정)
- 그렇지 그래. (만족)
- 철딱서니 없군. (비웃음)

한 문장안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비약적으로 높여준다.

- 무엇이 우리의 조국통일을 가로막는가?
- 결코 받아들일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같은 구조의 단어가 이어질 때에는 의식적으로 높낮이를 만들어 뜻을 정확히 전달하여야 한다.

○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

(《심리언어학》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주체106(2017).)

이처럼 말하는 사람의 감정심리의 변화 이것은 곧 어조의 변동을 언제나 동반하곤 한다. 둘째로, 말하는 사람은 사상감정과 심리전달의 목적에 따라 어조를 여러가지로 조절한다.

우선 교제과정에 사람들은 자기가 강조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보통 다른 단위보다 높은 소리로 말하곤 한다.

높낮이가 없으면 말이 아름답지 못하며 뜻이 정확히 전달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교제에서 높낮이의 조화는 논리적의미의 전달을 쉽고 명백하게 하는데서는 물론 말소리흐름의 활동성을 보장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논다.

사실 문장을 이루고있는 단위들가운데는 의미전달을 위하여 상대적으로 중요하고 특별히 강조해야 할 단어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단어도 있으며 또 말하는 사람의 감정의 깊이라든가 말하는 사람에 대한 고려 등으로 하여 어조를 여러가지로 달리해야 할 필요가 제기된다.

강조는 크게 문법적강조와 논리적강조로 나눈다.

여기서 문법적강조는 단순히 문장의 구성단위들사이의 끊기에 의하여 보장되지만 논리적강조는 어디까지나 사람들의 심리와 깊이 련관된것으로서 이것은 문장의 각이한 위치에서 임의로 다양하게 주어진다.

○ 학생들이 오늘 기차로 묘향산견학을 떠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학생들이 떠난다.)

학생들이 오늘 기차로 묘향산견학을 떠납니다.

(래일이 아니고 오늘 떠난다.)

학생들이 오늘 기차로 묘향산견학을 떠납니다.

(배스가 아니라 기차로 떠난다.)

학생들이 오늘 기차로 묘향산견학을 떠납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묘향산으로 떠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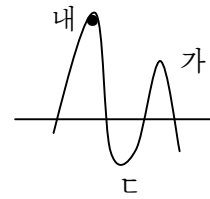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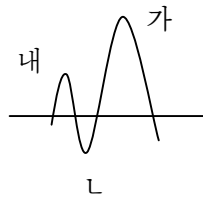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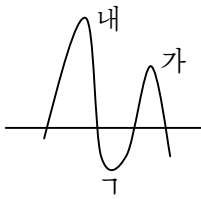
학생들은 오늘 기차로 묘향산견학을 떠납니다.

(머무르지 않고 떠난다.)

우리 말에서는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목적에 따라 어떤 개별적인 말소리나 단어, 문장 성분이든지 그것은 다 어조로써 강조될수 있다. 특히 기쁨, 격분, 추궁 등의 감정적흥분상태는 목소리가 높고 센것으로 나타나는 반면에 겸손성, 위축감, 권태증 같은 심리상태들은 일반적으로 낮고 약한 소리로 나타난다.

때문에 같은 단어, 같은 문장안에서도 말하는 사람의 의도, 심리상태 등에 따라 높낮이가 수시로 달라진다.

이에 대하여 《조선말화술》(사회과학출판사, 1975.)에서는 말소리의 높낮이를 다음과 같은 곡선으로 보여주며 설명하였다.



1의 경우는 보통 언어교제과정에 《내가 했다.》고 말할 때와 같이 그저 평범하게 자기 마음을 나타내는 경우이며 2는 《내가 했다고?》와 같이 따져물으면서 반문하는 경우의 어조이다. 그런데로부터 1에서는 단어 《내》가 높아졌고 2에서는 반대로 주격로 《가》가 높은소리로써 강조되고있다.

3의 경우는 강경한 자세로 《그래, 내가 했다.》고 딱 잘라 말할 때와 같은 경우의 어조이다. 때문에 여기서는 《내》에 높이마루와 함께 세기마루를 동시에 주었던것이다.

문장의 경우에도 이것은 마찬가지로인데 이러한 강조와 그를 통한 의미색채의 미세한 전달은 문장의 구조적형식만으로써는 나타낼수 없는것으로서 이것은 오직 어조에 의해서만 그 전달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므로 언어의 교제과정에 자기 생각이나 구체적인 감정을 상대방에게 정확히, 고스란히 전달하자면 단어나 표현을 잘 선택하는것과 함께 어조를 정확히 살려나가는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높은소리로 강조되는 부분은 한 문장안에 하나만 있을수도 있고 또는 여러곳에 있을수도 있다.

○ 이 일은 오늘중으로 당장 끝내야 한다.

나는 대학에 다니지만 막내는 아직 소학교에 다닌다.

아버지, 꼭 부탁해요. 꼭.

그렇다고 하여 길게 련속적으로 계속되는 문장안에서 거의 한두단어를 사이에 두고 매번 높은 어조를 반복하여준다면 강조의 효과보다도 오히려 듣기에도 지루하고 따분한 느낌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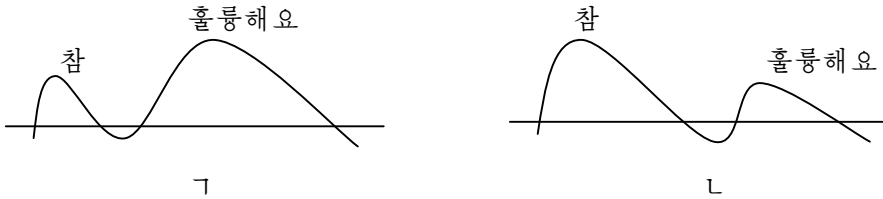
따라서 언어교제과정에 자기가 강조하려고 하는 대상을 전반적이야기의 목적에 비추어 잘 골라야 하며 상대방이 알아들을수 있는 정도의 적당한 높이로써 그리고 높은소리와 낮은소리를 잘 배합하여 표현해야 서로의 교제목적과 이해를 일치시키면서도 전반적말소리흐름과 교제과정을 원만하고 미끈하게 흘러보낼수 있다.

또한 교제과정에 사람들은 매우 심각한 문제에 부딪치거나 깊은 감동에 젖어 절절히 말할 때에는 오히려 감정이 집중되는 부분을 다른 부분보다 낮은 소리로 나타내기도 한다.

○ 참 훌륭해요.

이런 문장의 경우에 상황어로 된 부분 즉 《참》에 초점을 두면서 이것을 약간 낮으면서도 맑은 색깔로 발음하여 뒤단어와 구별을 둔다면 말하는 사람이 《훌륭하다》에 대하여 가지는 깊은 감동과 찬양하는 주관적평가가 그만큼 더 진하게 느껴진다. 반대로 이번에는 술어인 《훌륭해요》를 보다 낮게 발음하면서 감정적어조를 동반하면 단순한 평가만이 아니라

기대했던바 그대로가 실현된데 대하여 느끼게 되는 더없는 만족, 기쁨이 한데 엉킨 심정이 아주 뚜렷해진다.



아래의 문장들에서 밑줄을 그은 부분들은 말하는 사람이 강조하면서도 심각하게 느끼며 말하는것, 감탄하여 진정으로 인사하는것, 심중한 사태 같은것이 어조에 실려 나타나고 있다.

- 문제는 사람들의 심장에 달렸어요.
- 이번에 정말 큰일을 했습니다.
- 연구사동무도 떠나고 이제 혼자 남았어요.

말하자면 똑같은 어순으로 배열된 하나의 같은 구조의 문장에서도 어조를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주는가에 따라서 듣는 사람에게 주는 심리적인상과 느낌이 미묘하게 달라질 수 있는것이다.

셋째로, 교제과정에 사람들은 격동적인 흥분, 격분과 증오 같은 격한 감정을 적극적으로 나타내면서 그것을 보다 두드러지게 하려고 할 때에는 거기에 흔히 힘을 많이 주면서 박력있게, 센소리로 말하곤 한다.

원래 우리 말에서는 높いま루가 예리하게 두드러지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두개의 소리마디로 이루어진 단어에서는 그 첫머리에 순하게 오며 세개의 소리마디로 이루어진 단어에서는 보통 둘째 소리마디에 온다.

- 주체, 자 주, 조국, 승리, 당원, 하늘, 누나
 - 혁명화, 조국애, 정치적, 문화성, 천자식, 재생산
- 높いま루는 셋째, 넷째 소리마디에 오는 경우도 있다.
- 해바라기, 도루메기, 아버지, 고스란히
 - 천리마운동, 붉은기춤대

이러한 특성으로 하여 력점이 예리하게, 강하게 두드러지는 언어들과는 달리 우리 말은 말소리흐름이 전반적으로 유순하고 부드럽게 들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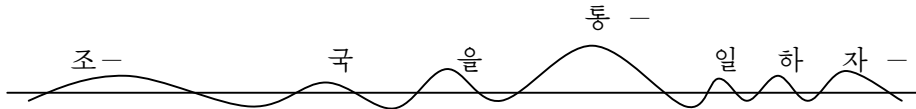
구체적인 정황에서 말하는 사람은 때때로 자기 감정의 깊이에 따라 소리의 세기를 여러가지로 옮겨줄수 있는것이다.

전반적인 문장의 흐름에서 격동이 넘치는 부분은 다른 부분보다 세게, 두드러지게 발음된다.

- 오늘처럼 긍지높고 자랑스러운 시대가 언제 또 있었는가?
- 당의 령도따라 만리마속도창조대전에서 모두다 시대의 영웅이 되자!

이 문장들에서는 밑줄을 그은 부분을 세게 발음하여줌으로써 말하는 사람의 의도와 함께 커다란 감동, 흥분, 힘있는 호소 등을 동시에 느낄수 있다.

박력있는 센 발음에는 길이마루가 동반되기도 한다.



언어사용과정에 일정한 말소리를 세게 발음하는것은 결국 단어의 계선을 뚜렷이 하면서 그 의미를 명료하게 나타내려는 사람들의 적극적태도, 격한 사상감정과 심리적작용으로 하여 생기는것이다.

- 《혁명을 팔지 마오. 동무는 열음장같이 차고 뽕뽕한것이 혁명인줄 아는데 혁명은 그자체가 뜨겁고 열렬한 사랑이란말이요. 너자의 심장이 그렇게도 뽕뽕바닥갈구야 어떻게 혁명을 하겠소? 예?!》

《뽕뽕바닥?! 동무는 구당조직에 와서 사랑을 설교하는건가요? 난 그런 련에 따위는 알지도 못하거니와 알고싶지도 않아요.》

(예술영화 《새 정권의 탄생》)

우의 실례문에서 심각한 극적대립으로 뽕뽕해질대로 뽕뽕해진 긴장한 분위기속에서 날숨이 많이 섞인 탄력있는 목소리에 마디마디의 힘을 주어 강하게 내뿜어올리는 성급하고도 무게있는 첫말은 불덩어리와 같은 열정을 지닌 주인공 최춘혁의 혁명적원칙성과 견결성을 인상깊게 안겨준다면 두번째 말은 아직 혁명의 진리를 똑똑히 깨닫지 못한채 제판에는 그래도 혁명에 한몫 다 바친다고 자부하는 룡매의 당당한 대결자세를 총알같이 뽕어대는 강한 어조속에 담아 보여주고있다.

넷째로, 교제과정에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나타내려는 일정한 대상, 현상에 대하여 형상성을 부여하려고 하는 경우 흔히 길게 끌어준다.

보통때에는 단어의 길이마루가 일정한 소리마디우에 고정되어 나타난다.

- 돌, 사람, 눈, 해설, 크다, 가다, 군사, 총대

교제과정에 길이마루는 말하는 사람의 감정적태도, 심리적움직임과 관련하여 여기저기로 옮겨가면서 나타날수 있다.

특히 모양이나 상태, 행동 같은것을 강조하면서도 그것을 보다 생동하고 형상적으로 실감있게 나타내려고 할 때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때에는 단어의 임의의 위치에도 길이마루가 옮겨진다.

- 새-빨갳다: 새빨-갳다
- 시-누렁다: 시누-렁다
- 커-다랗다: 커다-랗다
- 파들-파들하다: 파들파들-하다
- 다닥다닥: 다닥-다닥-
- 척척: 척-척-

뻥—드름하다: 뻥드름—하다

길이마루를 달리주어 표현하면 듣는 사람에게 사실이나 정황, 대상 같은것이 실지 눈 앞에 펼쳐지듯 방불해지면서 아주 생동하게 느껴진다.

보통말에서 경탄이나 긍정을 나타내는 단어들은 길게 발음되는데 일상적인 교체과정이나 시를 읊을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 아—그렇게 됐구만.

아뿔사—.

음—알만하오.

단어발음에서의 이러한 길이차이에 따라 교체에서는 말하는 사람의 감정의 깊이나 크기 정도를 얼마든지 가늠할수 있다.

○ 정—말 고맙습니다. (진정)

한—명도 오지 않았어요. (강조)

한—개 두 없구만요. (사정)

다섯째로, 사람들은 교체 과정에 말소리의 색깔을 여러가지로 조절하여 자기의 감정심을 표현하기도 한다.

말소리의 색깔은 일종의 소리의 《표정》이라고도 할수 있다.

우리 말에서는 밝고 어두운것, 크고 작은것, 둔하고 가벼운것, 차고 뜨거운것, 굵고 미운것과 같은 사물현상의 다양한 대조와 호상관계,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느낌과 평가 같은것을 말소리나 전반적인 문장에 물들여진 소리색깔로써도 아주 섬세하게 잘 나타낼수 있다.

소리색깔에는 사람의 나이와 남녀별, 성격 등과 함께 특히 그가 지닌 사상감정과 정신도덕적풍모가 그대로 반영된다.

우리 인민은 고상하고 우아하며 씩씩하고 건전하며 부드럽고 소박한 소리색깔을 좋아하는 반면에 간드러지고 연약하며 우악스럽고 거치른 소리색깔은 좋아하지 않는다.

소리색깔은 맑은 소리, 속삭임소리, 깊은 소리, 얇은 소리, 굵은 소리, 가는 소리들이 조화되어 나타나면서 말하는 사람이 강조하려고 하는 부분을 두드러지게 하고 이야기내용이 보다 생동해지도록 한다.

사람들은 소리색깔을 조절하는데서 말소리자체의 성질뿐아니라 자기자신의 목소리를 가지고도 조절리용할수 있다. 때문에 웃사람에 대해서는 보다 깊은 소리, 굵은 소리를 써서 정중하면서도 점잖고 또 엄숙한 감정적태도를 나타낼수 있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에 대한 끝없는 신뢰와 흠모의 정을 나타낼 때에는 정중하면서도 깊은 소리색깔로 나타내곤 한다.

○ 태양처럼 환히 웃으시던 어버이수령님이 못견디게 그립습니다.

한평생 인민행렬차를 타시고 우리 인민과 함께 계신 위대한 장군님

경애하는 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시의 경우 한개의 련안에서도 여러가지로 소리색깔을 달리 하는것을 볼수 있다.

- 진정 그 노래는 (낮고 깊은 소리)
 솔잎의 새벽이슬 털며 (맑은 소리)
 사령부 아침밥 지으시던 (맑은 소리)
 어머니 그 정성 아니신가 (낮고 깊은 소리)

승엄한 감정을 나타낼 때에는 깊은 소리바탕에다가 낮고 부드러운 사색적인 색깔이, 자연과 사회현상에 대한 리치를 가르치고 깨닫는 지적감정을 나타낼 때에는 설득력있고 신심있는 깊은 소리색깔이 잘 어울린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이야기대상과 내용, 이야기목적과 주위분위기에 따라서 침착하다든가 성난것, 놀라움과 반가움, 타이르는것과 자책 같은 감정은 맑고 굵은것, 쟁쟁하고 발랄한것, 무겁고 야무진것 등 목소리의 여러가지 색깔로써 감싸줄수 있는것이다.

- 그래가지고도 뭐 혁신자가 되겠다구.(혼자소리로 비웃는 어조)
 그 사람이 어딜 다니는지 내가 알게 뭐요.(시답지 않은 어조)
 점심도 못 먹고 그 먼길을 달려왔더니 이제는 일어설 기력조차 없소.
 (맥빠진 어조)

일향이, 오늘 유치원에서 뭘 배웠나요? (동심에 찬 상냥한 어조)

이처럼 말소리의 높낮이와 길고짧음, 세기와 소리색깔을 포함한 어조의 이동과 조절에 따라서 사람들의 각이한 사상감정과 심리정서의 표현이 크게 달라진다.

그런것만큼 언어교제에서는 말과 글의 내용에 따르는 여러가지 사상감정과 심리적인 느낌을 말소리에 정확히 담아내야 한다.

우선 개별적말소리들의 발음을 평양문화어규범의 요구대로 할뿐아니라 여러가지 말소리나 말투가 내는 맛을 예민하게 갈라듣고 그것을 능동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자면 우리 말 자모음들과 교제과정에 언어적단위들이 낳는 어감을 잘 알아야 하며 발음과정에 말소리가 달라지는 경우들도 잘 구분하여 리해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들으면서 거기서 나타나는 미세한 어조상의 차이를 잘 가려볼줄 알아야 한다.

또한 하나의 말에 여러가지 뜻과 감정을 담아 변화시켜보는 훈련을 해야 한다.

사실상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어머니》, 《동무》와 같은 말을 하루에도 수십번 하지만 환경과 분위기, 말하는 사람의 목적과 기분상태 그리고 말하는 사람 등에 따라 그 어조를 매번 달리하고있다.

그러므로 전달하려는 뜻에 따라 여러가지 사상감정과 심리를 진실하게 표현하는 원칙에서 어조와 관련된 화술숙련을 의식적으로 하여야 한다.

3. 결론

론문에서 새롭게 밝힌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심리전달과 어조의 연관성으로부터 출발하여 어조와 그 특징을 사람들의 사상감정과 심리표현, 심리전달과 결부시켜 세가지 측면에서 체계화하였다.

또한 소리마루, 높낮이와 길고짧음, 세기와 소리색갈 등 어조의 구성요소를 분석한데 기초하여 그것이 언어교제에서 사람들의 귀맛을 자극하고 교제의 활동성, 형상성을 보장할뿐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교양정도와 문화수준을 보여주는데서 노는 고유한 기능에 대하여 밝히었다.

끝으로 말소리흐름상에서 어조의 차이가 생기는 일반적계기와 그 내용을 사람들의 실제 언어교제과정과 련관시켜 분석하였다.

그러나 입말과 글말의 각이한 문체별차이에 따르는 어조의 다양한 이동과 조절에 대해서는 아직 다 해명되지 못한것만큼 앞으로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를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우리는 언어교제에서 의미내용의 론리적전달과 함께 정확하고 활동적인 어조에도 응당한 관심을 돌림으로써 언어생활을 더욱 문명하게 해나가도록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언어교제, 어조, 소리높이, 세기